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 ‘호응’

화북교 등 3개교 5·6학년 대상...사회복지 인식 개선 한 몫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지역인 제주시 화북·산양동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시교육청과 연계해 지난 5~6월 화북·산양·동화초등학교를 방문, 5~6학년 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란 무엇일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 ‘노인의 개념과 노화’, ‘자원봉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교육 실시 이전과 이후에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만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항목에서 교육 전에는 31명(33%)만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나, 교육 이후에는 60명(63.8%)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장애인과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싫다’라는 항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교육 전에는 33명(35.1%)에 불과했으나 교육 후에는 52명(55.3%)으로 늘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이 호응을 얻었다. 사진은 산양초등학교 학생이 노인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한 초등학생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알게 됐다”며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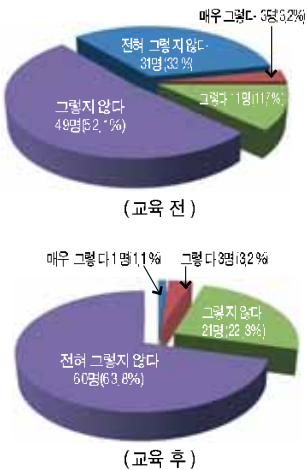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복지 교육 시간을 늘려달라’,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도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 정무순씨는 “초등복지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복

지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다”면서 “감수성이 풍부한 초등학교 단계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과 관련, 7월 18일에 열린 초등학생 복지교육 평가회에서는 교육 대상 지역 확대와 함께 저학년 대상 맞춤형 교육,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올 하반기에 서귀포 지역으로 대상을 넓혀 복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자 명예기자>

Q. 사회복지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김만덕상 후보자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녀 김만덕의 숭고한 자주·근면·박애정신을 추모·계승하기 위해 ‘김만덕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추천 대상은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으로 나뉘며, 봉사부문은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봉사에 헌신한 국내·외 거주 여성, 경제인부문은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배움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환원한 국내·외 거주 여성을 추천하면 된다.

추천 자격은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전국 교육감, 행정시장, 역대 김만덕상(만덕봉사상) 수상자,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각급 단체장, 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다.

9월 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양상평등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탐라문화제 만덕제 봉행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임문범복지안전위원장 인터뷰
시설탐방제주여성긴급전화 1366
- 사회복지소식 4·5면
찾아가는 문화공연·소식마당
푸드뱅크·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기고
- 특집 7면
제2회 희망제주 복지포럼

“사람이 더 대접받는 참 신탁” 동광신탁

당신의 열정도
우리에게겐 신용입니다
신탁으로 오십시오

자산 200억원 달성기념

- 정기에탁금 우대 금리 적용
- 정기에탁, 정기적금 가입시 기념품 증정
- 일일상환대출 및 일반(담보)대출 상담 환영



동광신탁동조합 (일도지구 선거관리위원회 사거리) TEL:(064)751-1551~2 FAX:(064)751-1553



“사회약자층 사회안전망 구축 최선”

임문범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인터뷰

임문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사진)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여성·노인학대와 부부 간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우선 사회 약자층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복지안전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혀 달라.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효과를 따져본 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전체 예산의 약 17% 정도인 복지예산의 2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통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가족 해체 현상 등 최근 도민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

▲사회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늘상 예산 확보가 어려운 탓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복지 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선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번째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기존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백화점식 복지사업 선택과 집중 필요 노인학대 급증...다양한 노인정책 시급

평가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두번째는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국고보조금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를 꼽는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아동·노인·여성학대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또 부부간의 폭력 문제,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이동의 증가, 빈곤의 대물림 현상, 여성의 빈곤 심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따른 가족 돌봄 노동이 가중되어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함께 노인에게 가족 돌봄 문제를 사회가 책임지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도내 사회복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우리 사회의 따뜻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신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자는 공공기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서비스 질 향상 뿐만 아니라 복지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 대안 개진도 매우 중요하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소중한 의견을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수용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정 사회복무요원 71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무제도는 현역 복무 대신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로 올해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은 4주간의 군사훈련과 1주간의 소양교육, 2주간의 직무교육을 받은 후 지역의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직 공무원보조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에 배치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회복무요원 관련 교육을 위탁받아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사회복무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기고

21세기의 김만덕을 찾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또 오늘을 사는 후손들의 귀감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제주여성인 김만덕의 삶과 공적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되새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제주여성의 후예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만덕은 변방·여성·천민·상업이라는 최악의 조건을 뛰어넘은 조선시대 여성 CEO로서 정조 16년(1792년)부터 4년간 제주에 최악의 흉년이 닥치자 평생 모은 재산을 팔아 굶어 죽어가는 제주 백성을 구한 의인으로서 한국여성의 정신적 표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김만덕 의녀반수(醫女班首)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0년부터 매해 만덕제를 봉행하고 ‘김만덕상’을 시상, 올해로 29회를 맞고 있다.

올해는 9월 8일까지 제29회 ‘김만덕상’ 수상후보자를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김만덕 의녀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와 제주여성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김만덕상’ 시상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국내·외 여성으로 문호를 개방하였고, 시상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수상후보자의 추천대상은 지주·근면·박애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한 여성으로 순수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등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일반여성에게는 봉사부문을,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배분의 실천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경제인 부문을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추진한 고액권 도안 초상인물로 ‘의녀 김만덕’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종 선정되지는 못해 제주도민들이 무척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바도 있으나, 올해 농협중앙회 발행 농산물 상품권 및 봉투에 디자인 인물로 선정되어 9월 초에 전국적으로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김만덕 관련 학술연구사업, 김만덕 초상화의 재제작, TV드라마 제작 등 의녀 김만덕 선양사업을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8세기에 21세기의 삶을 살다간 김만덕을 찾는 일에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허 신 숙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활동지원담당

제주시정소식지

점자책·오디오북 발간

제주시는 시각·청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시정소식지를 점자책과 오디오 북(녹음테이프)으로 발간했다.

점자 ‘열린 제주시’에는 각종 정보와 시정 홍보 내용을 담고 있다. 매월 1회 발간되며, 점자 책과 오디오 북 각각 200부가 제작된다. 발간된 책지는 점자 도서관과 전국장애인시각복지관, 그리고 제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발송된다.

제주시는 시정 소식 등을 담은 점자 책과 오디오 북이 발간됨에 따라 그동안 정보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고 쉽게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제주도, 10월까지 도내 건물 2600여곳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10월말까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된 건물 2634곳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접근로·장애인주차구역 등 매개시설, 출입

구·계단 등 내부시설, 화장실·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객실·침실·관람석·열람석·작업대 등 기타 시설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음식점, 영화관 등에 대한 온라인 지도를 제작, ‘이동경로 IT정보 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자원봉사자 발대식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7월 24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 8396명을 중심으로 전문자원

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주도 자원봉사센터는 전문자원봉사활동분야 활성화와 전문봉사단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와 재난·재해 발생 시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설탐방

(9)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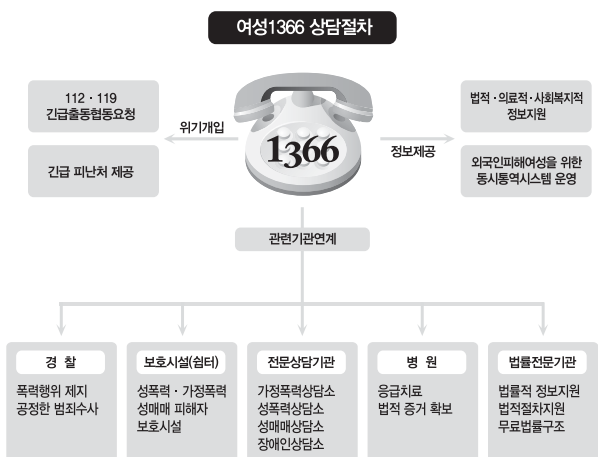
24시간 여성 지키는 'Hot Line'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언제나 충분하고 섬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폭력상황으로부터 피신을 할 곳이 없거나,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할 때 ▲미혼모, 가출, 유혼, 성매매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 ▲기타 여성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 전국 어디서나 국

번없이 1366을 누르면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보호망으로 전국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 현재 (재)제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대표 박영미)은 1998년 1월 1일 (사)제주여민회부설 여성상담소 민간위탁 운영으로 개통됐다. 정부와 도에서 지원을 받는 국가

경찰 등과 네트워크 구축 '원스톱' 보호망
박 대표 "폭력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기관, 비밀이 보장되는 공익기관으로 연중 24시간 여성을 지키는 'Hot-Line'이다.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는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1차 긴급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전화, 면접(내방, 방문), 서신, 사이버(공개, 비공개) 등 ▲긴급피난처 운영 ▲연계 사업(1366 ONE-STOP 연계기관) ▲홍보사업 ▲교육사업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영미 대표는 "도움이 필

요한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서 찾아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이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1366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의 올해 상반기 상담현황은 2315건(가정 폭력 923, 성폭력 81, 성매매 33, 이혼 35, 부부갈등 102, 성상담 55, 가족문제 103, 중독 43, 법률 42, 기타 898)이며,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여성은 111명(동반자녀 41명)이다.

폭력이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박 대표는 "부부, 자녀와의 대화방법이나 관계개선 등을 위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이나 장소 등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폭력 없는 세상이 와서 이런 시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낸 박 대표는 "폭력상황이 발생할 때 여성들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위기에 처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1366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조순옥 명예기자〉

“한부모가족 힘내세요”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비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자녀의 방과 후 학습비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방과 후 학습비를 1인당 매월 7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생 650명이다.

지난해에는 중·고등학생

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초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제주시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원수강을 엄두조차 내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지원 범위를 초등학교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교과목 외에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학생이 선호하는 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도 학원비가 지원된다.

혼자 사는 노인 보호시스템 강화

최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혼자 사는 노인에게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혼자 사는 노인 9371명에 생활관리사 98명을 주기적으로 방문토록 해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독거노인 폭염대비 보호강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폭염 등 기후변화에 적

응력이 약한 노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냉방기가 없는 혼자 사는 노인 180명에게 선풍기를 긴급 지원하고, 냉방기가 고장이 난 가구에는 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또 노인들에게 무더울 때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고,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갖는 등 폭염에 대비한 행동요령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등에 기부금·차량 전달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KRA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본부장 정금석)는 7월 20일 제주경마공원에서 올 상반기 기부금 전달식 및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에서 주관하는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이날 총 21개 보훈단체 및 복지시설에 1억250만원을 기탁하는 한편 성안노인복지센터에는 4인승 승용차를,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에는 12인승 승합차를 각각 전달했다. 또 남제주요양원에는 3000만원 상당의 보건기구를 기증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지난 1990년 12월 개장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771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마사회 제주본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한 세액은 645억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총 세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자판기수익금 장애인 급여지원

해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합력리 주민들의 협조로 합덕해수욕장 종합관리센터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자동판매기는 장애인들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장애인 급여로 전액 지원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6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사용내역	금액
재가결연후원	1,880,000	재가결연대상자후원	1,880,000
난치병환아후원	220,000	난치병환아지원	500,000
복지사업후원	2,990,000	복지사업	552,23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신명으로 함께하는 두들소리

사물놀이 마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희망 전달

사물놀이 마로(대표 양호성)가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열어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함께누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길트기, 제주의 사물놀이, 선반 사물놀이(구정놀이 : 상쇠부포놀이, 설장고, 채상소고, 열두발상모놀이), 대동마당으로 구성돼 관객과 출연자가 함께 어울리는 문화한마당으로 꾸며진다.

이 공연을 기획한 송정희 실장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들에게 우리 음악의 가장 위대한 열린 구조를 통해 관람자와 공연자의 구분 없이 너와 내가 다름이 아닌 같음을 느끼고 음악으로 소통함으로써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2000년에 결성돼 현재 7명이 활동하고 있는 사물놀이 마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국악을 지향하며 ▲사물놀이 전문인 양성 ▲전통한 여가문화의 활성화 ▲국악의 직접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보다 보편적인 국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월 9일 청암재활원과 제주애덕의집을 시작으로 7월 16일 송죽원, 7월 25일 서귀포시 작은예수의집, 7월 26일 정혜재활원, 7월 28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7월 30일 제주장애인요양원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오는 7월에는 제주케어하우스, 9월 6일에는 아가의집에서 신명나는 풍물 한마당을 벌인다.



이 공연을 지켜본 제주애덕의집 홍순자 사회복지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기회가 없어서 문화체험을 자주 할 수 없었던 생활인들이 신명나게 춤추고 어울리며 땀에 젖은 얼굴로 ‘얼췌!’를 소리 높여 외치는 모습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며 “좀 더 많은 다양한 문화공연이 현장을 찾아와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무료해지기 쉬

운 생활인들의 삶에 작은 감동을 심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물놀이 마로는 이달 여름 방학맞이 캠프를 열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풍물의 흥겨움과 신명놀이를 배워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참가신청 문의는 064) 722-0129.

〈이소영 명예기자〉

지적장애인의날기념식 개최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지부장 허상호)는 7월 4일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적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9회 한마음 열린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적장애인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김영애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정영석 국제라이온스협회 제354-G지구 제4지역 부총재, 이창용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적장애인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창립 10주년을 축하했다.



일배움터, 원예사업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원예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예사업프로그램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 신규사업에 선정됐으며, 수익성이 높은 사업진출을 위해 원예아카데미, 화초관리사업, 꽃배달, 조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된다.

일배움터는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원예사업 개발을 통해 지적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을 비롯해 소득증대 및 고용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성 연구실 발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는 7월 5일 참사랑 문화의 집에서 제1기 지적장애인 성상담·성교육 양성과정 수료식 및 장애인 성 연구실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단계 교육을 시작으로 실습과정과 슈퍼비전을 마친 59명의 수강생이 수료했으며, 이들이 앞으로 장애인 성 연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성 연구실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성 지도방안 연구와 함께 성 향유권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형성해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소/식/마/당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캠페인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를 위한 ‘게릴라캠페인’ 및 ‘오일장-DAY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제주시 동문로터리 음악분수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등지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에는 시민 800여명이 참가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7월 17일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에서 서귀포지역아동센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고의무 필요성과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실시됐다.

동백동산생태습지 탐방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센터장 황호민)은 최근 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쪽에 위치한 동백동산 생태습지 탐방을 실시했다.

이날 생태탐방은 ‘나를 찾아 떠나는 희망프로젝트-결손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독서통합놀이치료’라는 주제로 다양한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장애인생산물품 홍보·체험 행사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양은심)는 7월 12일 제주시 탐동광장에서 장애인생산물품 홍보 및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도내 6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칠보공예, 도자기, 양초, 케익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행사 참가자들에게 장애인 생산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동제주복지관, 개관1주년 경로잔치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희경)은 6월 24일 개관 1주년을 맞아 지역 노인 등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악대 및 각설이공연, 노래자랑, 경락마사지, 이·미용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지역 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3세대공감 미용활동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복)은 6월 27일 한국뷰티고등학교에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경로당 노인들을 모시고 1·3세대공감 미용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학교와 경로당을 연결,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의 진솔한 삶 들려줘요”

장애인인터넷방송국, 부부 성이야기 등 생방송

인터넷을 활용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자 설립된 장애인인터넷방송국 ‘DBS(Disabled Broadcasting Station)’.

2007년 10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를 이용해 생방송을 시작한 DBS는 14명의 방송자키(BJ)가 번갈아가며 ‘부부 성 이야기’, ‘역순이방으로 놀러와’, ‘주제가 있는 수다방’ 등 10여개의 생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느끼는 진솔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세상을 향해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DBS 운영자 박지주씨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만



△ 7월 28일 한 방송자키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곳이 인터넷 세상”이라면서 “현재는 DBS가 제주도 지역의 장애인들만 참여해 운영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 재정비 시간을 갖고 내년에는 전국의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상에서 느끼는 장애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장애인인터넷방송국 DBS(www.ablelive.com)와 아프리카 장애인인터넷방송국(afreeca.com/ablelive1)에서 시청할 수 있다.

〈현경애 명예기자〉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 (7) (주)서찬문축산



“부족하더라도 나눔 실천해야”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주)서찬문축산(대표 고승갑)을 찾았다.

고 대표는 9년간 축산 유통업을 해오면서 푸드뱅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인을 통해 제주장애인요양원, 인효원 등에도 크고 작은 후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제주지구청년회의소(JCI)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가이다.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며 가슴에 항상 ‘나눔’에 대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고 대표는 남을 배려하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푸드뱅크에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 대표는 “2년 전 서울로 축산 유통 사업을 확대해 바

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항상 ‘나눔’을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어 보람도 느끼고 기쁘다”며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고 대표는 “나눔에 대한 실천은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회사가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조금씩이라도 매년 후원을 확대하고 싶다”고 전했다.

〈추영민 명예기자〉



고승갑대표

장애인인권학교 현장 교육 실시

제주장애인야간학교(교장 최희순)는 지난 6월 초등학교생들의 올바른 장애인관을 확립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2008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장애인인권학교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차별, 장애인편의시설, 자립생활 등 4가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 상반기에만 초등학교 41개 학급에서 인권학교가 열렸는데 참가를 원하는 학급은 제주장애인야간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064)751-9100.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호음’

중증장애인의 이동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장구수리센터가 장애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보장구수리센터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를 수리해 주고 보장구 구입시 장애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과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올 상반기에만 222건의 실적을 거뒀다.

보장구수리센터는 앞으로 보장구 수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센터 운영 활성화 및 재원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알/림/마/당

■ 청소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박한샘)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오는 2일에는 중·고교생 30명을 대상으로 ‘이미지 메이킹-자신감을 키우는 참 좋은 이미지 만들기’, 9일에는 ‘경제특강-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5일부터 7일까지는 ‘인터넷캠프’를 각각 운영한다.

이에 앞서 7월 24일과 26일에는 학부모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 자녀 인터넷사용 조절’과 ‘비전특강-자신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노하우’를 진행했다.

문의=064)759-9950~2.

■ 성매매 방지 슬로건·사진 공모전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오는 20일까지 ‘성매매 방지를 위한 슬로건·사진 공모전’을 연다.

‘이해, 공감, 실천하는 반(反) 성매매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문의=064)751-8297.

■ 땀 한방울 봉사·체험 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땀 한방울 봉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떡만들기 및 생일잔치,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게임 및 비빔밥 만들기, 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하는 매직풍선 및 페이스페인팅 등이다.

문의=064)751-5041.

“문화예술공연 마음껏 즐기세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산남지역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문화여가권 보장을 위한 3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문화예술바우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재단과 극단 가람, 극단 이어도, 이어도 문화센터 등 도내 자생 문화예술극단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단계로는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월 1회 문화



예술공연 관람, 공연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 3단계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예교실, 뮤지컬교실과 같은 문화예술 지도·보급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간고등어, 수산물품 전달

제주간고등어(주)대표 김석현은 7월 18일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한동휴)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기관, 시설·단체 등 50여 곳에 냉동어류 119상자를 전달했다.

제주간고등어(주)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물품을 기탁했다.



장애인작품전시회 개최

혜정원 아가의 집(원장 고영성)은 7월 4일부터 이틀간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전시실에서 장애인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는 아가의 집 장애인들이 만든 엽서아트, 칼라믹스 등 총 200여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6월 식품기탁자 명단·수량



▲ SMC

던킨 도너츠

도넛

9789개 ▲

명당양과(신제주점)=빵 200개 ▲제주물

류빵집(포파도르)=빵 200

개 ▲(주)금강축산유통=육류

120kg ▲(주)서찬문축산=육류 60kg ▲(주)신세계이마트

=통조림류 및 쌀 7개 ▲(주)

대상=양념류 279개 ▲C(주)

=기타식재료 2916개 ▲(주)

오뚜기=부식류 846개 ▲롯데

칠성(주)=음료류 7960개

광역시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칼럼

문학의 숲속을 거니는 휠체어



김길웅
수필가·시인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장애인을 위해 개설한 예비문인들의 모임인데, 내가 강의를 맡고 있다. 스무 남은 회원 중에 등단작가가 여섯이나 된다. 3년 동안에 일궈낸 눈부신 성과다.

여류수필가 오영순님도 그 중의 한 분이다. 50 중반인 그녀는 몇 년 전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의 자유를 잃었다. 청천벽력 같은 사고는 그녀에게서 직립보행을 앗아갔다.

거기다 언어장애와 한쪽 눈의 실명. 그런 걸 운명이라 하는가. 이젠 휠체어가 곧 그녀의 두 다리 가 돼주고 있다.

하반신 자유 잃은 50대 주부

그녀는 몇 년 전에 수필로 등단했지만 수필 못장게 시도 수준급

이다. 시적 감성이 여간 여리고 고운 게 아니다. 그녀의 수필은 여성 특유의 정겹고 해맑고 섬세한 서정으로 넘친다. 애이불비(哀而不悲), 서럽게 가슴 울리는, 그러면서도 결코 슬퍼하지 않는 애잔한 가락이 예사롭잖다. 깔끔하고 세련된 문장이 일품으로 그녀의 시와 수필을 읽다 보면 은연중 순연한 착상과 아름다운 상념에 흠뻑 젖곤 한다.

어느 날, 내가 수필 강의를 막 시작하려는데 휠체어가 강의실 입구에 나타났다.

그녀였다. ‘아, 오셨군요.’ 그녀가 없으면 강의할 기분이 반감하는 터라 순간적으로 반색하게 됐다. 선뜻 인사를 하고 찬찬히 바라보니 그녀의 뒤에 한 남자가 우뚝 멈춰 서 있다. 첫 눈에 그녀의 남편인 걸 알아 봤다. 직장이 쉬는 토요일이라 부인을 뒷바라지하는가 보다.

나는 얼른 그녀의 남편에게 목례를 보냈다. 그도 눈으로 답례를 보내온다.

창밖엔 비가 추적적이고 있었다. 휠체어 신세가 된 아내를 끔찍이 위해주는 한 남자의 모습이 소년처럼 희망적이고 천사처럼 어여쁘다. 그 남편을 보면서 그녀의 좋은 시와 수필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다.

오늘도 그녀는 조금 지각을 했

다. 강의가 시작되고 십분쯤 지났을까. 출입문이 배시시 열리면서 휠체어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가슴 푸근한 그녀의 남편.

남편 외조 숙수필가 등단

나는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 남편에게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청했다. 그리 크지 않은 보통 남자의 손, 그러나 두텁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녀의 출석이 내게 에너지를 대주는 건 참 이상한 일이다. 때마침 내 수필 한 편을 낭독할 때였다. 목소리가 탄력을 받는다. 감정의 즐거움을 휘어잡고 가던 내 목소리가 저쪽 즐거움의 끝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기 시작한다. 강의를 듣는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강의를 끝내고 걸어 돌아오는 길. 발끝에 눈을 주고 걷는데 납작 엎드린 풀 하나가 시선을 끈다. 인도 블록 틈새에 돌아난 질경이, 그 낮은 한 포기 풀이 꽃을 피워 올렸지 않은가. 흙 한 톨 없는 거친 곳에 앉아서.

질경이의 무채색 꽃 위로 문학의 숲속을 거니는 휠체어가 포개진다. 하지만 그녀는 무채색이 아니다. 곱게 웃고 있었다. 푸른 웃음이다.

기고

학교청소년복지,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는 1969년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에서 마포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를 도와준 활동이 시초였다.

이후 1997년 영등포여상과 한가람고의 학교장이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회복지사를 공식적으로 채용하였다. 2002년에는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으로 14개 학교에, 부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게 되었다.

또한 2004년 전국 48개교에서 요보호 학생, 부적응 학생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복지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현재는 교육복지기반 증진과 학교폭력예방에의 초점, 학생중심의 접근, 협력적 관계의 구축, 가정-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입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 극대화 등의 기본 원칙 속에 96개(제주도 6개)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역특성·현실맞는 정책 시행돼야

2007년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 보고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은 심리·정서적 안정과 함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이 학교로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폭력 등 비행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 개선을 통한 학생의 변화와 지역과 학교의 연계가 활성화되었으며, 96개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54만7894명에 대한 개입과 총 15억 5천만원의 자원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는 정부지원금만으로 대상자들에게 직접 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사업들에 비해 사회복지사 한 명의 투입으로 학생, 학교, 가정과 지역사회 측면 등 다각적 차원의 긍정적인 산출효과를 보여준 고무적인 결과이다.

현 시점에서 학교청소년복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성장 중심의 복지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 체계 속에서 출범 2주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비용’과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맞는 학교청소년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여기에 민간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 학교, 지역복지와 실천분야에서의 상담,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등이 포괄적으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자원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을 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학교청소년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학교부적응에 대한 예방과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처는 학교나 교육당국과 더불어,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 공동책임의식을 갖는데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지금, 학교청소년복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의지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양창성
제주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기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복지무제도



강성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사회복지무제도는 국가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2+5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인력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로써, 올해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복지무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의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의경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는 사회복지무제도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은 단계적으로 감축되면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분야 직무교육의 교육내용은 직무지식 습득·체험학습·현장실습 등으로 이뤄져 있고, 교육 후 사회복지시설·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료원) 등 복무기관에서 복무 시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시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간의 업무협력협정(MOU) 체결에 따라 7월 7일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무요원 71명을 대상으로 7월 17일까지 2차 제주 현지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시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으로 사회복지무요원 교육대상자들이 물으로 나가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이중효과를 얻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로 저출산, 고령화, 실업, 빈곤,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영향으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 소득보장위주의 전통적 복지정책이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복지를 ‘소비가 아닌 사회 유지와 발전의 핵심요소’로 바라보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려는 ‘사회투자국가’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장기능 및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육을 통해 배출될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무요원은 4주간의 군사훈련과 1주간의 소양교육, 2주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지역의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조분야, 보건의료분야에 배치돼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손길을 전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무제도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병역면제의 형평성, 기존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회 희망제주 복지포럼

“청소년복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지역의 각종 사회복지 분야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제2회 희망제주 복지포럼'을 개최했다. 본지는 제2회 희망제주 복지포럼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제2회 희망제주 복지포럼이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에서 열렸다.

“청소년가정 고려한 종합적 접근 미흡”

문성호 교수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청소년복지'

문성호 중앙대 청소년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청소년복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청소년 복지 정책의 방향은 미래 경제활동 참여집단인 청소년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와 아울러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청소년기 빈곤이 전 생애 과정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에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형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청소년 잠재역량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투자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청소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요보호청소년에 국한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우선 순위도 명확하게 지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천적 접근에서도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가 요보호청소년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문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이유에 대해 ▲투자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

청소년의 경우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권이 제한적이라는 점 ▲청소년인구의 감소로 정책결정의 우선 순위가 낮다는 점 등을 꼽았다.

문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청소년복지정책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핵심정책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는 배제되어 있다”면서 “능동적 복지 모형으로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청소년복지 영역에는 없다”고 청소년복지 소외론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청소년복지를 포함한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양한 경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후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청소년복지 과제로 ▲국가지속지원 체계망의 내실화 ▲예방적 건강투자 확대 ▲소득보장제도의 재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최적의 재정관리 구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청소년복지 방향에 대해 “공급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던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청소년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중심 교육투자전략 세워야”

김민 교수 '교육복지사업 활성화 방안모색'

김민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 교육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희망스타트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투자전략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육복지사업의 교육적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상의 문제들을 재고하고 지속적, 장기적으로 개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지원 활동, 과외 참여율, 과외비 지출 등 가정의 지원 또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지원 정도에 따라 교육격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차이가 계층 간 학업성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들거나 부족하기 쉬운 경제적 지원, 교육적 관심을 위스타트 사업이나 희망스타트사업, 교육투자우선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이 적극적, 지속적으로 제공해 준다면 계층 간 교육격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투자 전략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중복적이고 유사한 사업들을 상호 연계, 협

력하되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각 교육복지사업들의 역할분담과 특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새로운 운영모델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스타트사업의 경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복지 및 건강상의 지원에 집중하고 교육적 지원은 방과후학교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상대적으로 사업성과가 저조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스타트사업에 일임하고 교육투자우선사업은 초·중학생에 집중하는 한편 사업학교 전체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학교 교사 전체에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세대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지원은 장기적 효과이므로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스타트사업의 경우 지원서비스 수행 전문인력을 현재의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중심에서 학교교사 자격증 보유자도 포함시켜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RA 제주경마공원 세계말 체험동물원

